



이금재(목원대)

1. 들어가는 말: 연구 목적

'주일'이라는 단어만큼 기독교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이레 동안을 세는 단위인 주일(週日)의 마지막 (또는 시작하는) 날을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라고 칭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主日)로 부르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지금의 주일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속적인 신학적 논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에서 이에 상응하는 날은 보통 '안식일'로 번역되는 $\eta\sigma\alpha\tau$ (사바트)이다. 유대교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주일'은 초대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두 개념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안식일'과 '주일' 모두 일차적으로 예배(=제의)를 전제하는 종교적 성일(聖日)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식일이 YHWH의 7일간 천지창조의 정점이자 마지

www.kci.go.kr

막을 장식하는 거룩한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이자 십자가 사건의 완성인 부활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날이다. 여기에 사회적 관점에서의 노동을 쉬는 휴일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날 모두 종교적으로 한 주간 중 옛새를 일하고 하루를 거룩한 날로 정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날을 언제로 지정하고 지키는가에 대하여는 잘 알려진 것처럼 다르다.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하루가 거룩한 날이지만, 주일은 소위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다.¹⁾

이러한 기독교의 성일인 ‘주일’과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성서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실천신학 등 전반적인 신학연구의 주제로 지금까지도 자주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שַׁבָּת**가 고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신학적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שַׁבָּת**가 언급된 구약 본문과 이에 상응하는 고대 근동의 사료를 분석하여 시대에 따른 **שַׁבָּת**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히브리어 **שַׁבָּת**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만나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16장 23에서 처음으로 언급된다. 옛새 동안에는 먹거리를 거둘 수 있지만 이날은 ‘YHWH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는 것, 빵을 굽는 것 그리고 음식을 요리하는 등 일련의 육체적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약 속 **שַׁבָּת**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7일 주기의 ‘안식일’, 일을 쉬는 ‘휴일’ 또는 종교적으로 YHWH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날’일 것이다.

이 후에도 **שַׁבָּת**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109번 언급된다. 몇몇 본문에서 이 단

1) 이와 같은 성일의 차이는 이미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안식일(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지만, 이와 달리 비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부활한 현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어는 7년으로 이루어진 주기의 일곱째 해로 농사를 짓지 않고, 맺힌 열매를 거두지도 않는 휴경(休耕)기간인 안식년을 의미한다(레 25:2-7). 그러나 이 외에 많은 본문에서 이 단어는 일차적으로 7일로 구성된 주간 주기(The Weekly Cycle) 중 이렛날 휴일, 즉 ‘안식일’을 의미한다. 또한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위 ‘안식일 규례’ 속에서도 이 단어는 많이 언급된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왕국 시대를 전제하는 몇몇 본문에서(왕하 4:23; 호 2:11; 사 1:13) חַבֵּשׁ가 달의 공전 주기와 연관된 매달 초하루를 의미하는 ‘월삭’(שַׁחַר/호데쉬)이라는 단어 뒤에 나란히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월삭’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된 חַבֵּשׁ가 왕국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1) 고대 근동과 구약 속 월신 숭배 사상 그리고 축제일 ‘월삭’과 ‘망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은 효율적인 경작을 위한 전반적인 농경문화의 발전을 전제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체제의 변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태양과 달의 주기적 변화와 일정한 주기의 추위와 더위 및 기후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천문학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의 발전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종교의 발생 및 이 두 행성의 위상 변화와 공전 주기를 근거로 제정되는 주요 축제일²⁾과 같은 절기의 탄생을 의미한다. 보통 농경 사회의 축제일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다양한 신적 존재, 무엇보다 태양과 달의 신을 위한 절기를 근간으로 정해진다. 왜냐하면 이들 신적 존재가 풍요로운 농산물 수확을 직접 관장한다고 생각했

2) 메소포타미아 절기는 Burkhard Gladigow, Art. "Ritual" (HRWG IV; Stuttgart: Kohlhammer, 1998), 458-460와 Otto Bischofberger, Art. "Feste und Feiertage. I. Religionsgeschichtlich" (TRE 11; Berlin: Walter de Gruyter, 1983), 94를, 이집트는 Hartwig Altenmüller, Art. "Feste" (LÄ II; Wiesbaden: Harrassowitz, 1975), 171-191, Hans Bonnet, Art. "Feste", *Lexikon der ägyptischen Religionsgeschichte* (Nikol Verlagsgesellschaft: Hamburg, 2000³⁾, 185 그리고 Wolfgang Helek, Art. "Rituale" (LÄ V; Wiesbaden: Harrassowitz, 1984), 271-285를 참고하라.

기 때문이다.³⁾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חַצִּיט**와 함께 언급된 ‘월삭’은 달의 위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옛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달이 기울고 치는 현상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신화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전역에서 달은 태양보다 더 신비롭고 더 상위의 종교적인 대상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적 존재로 달은 숭배되어졌다.⁴⁾ 예를 들면 수메르 도시국가 우르에서는 달이 태양신 ‘우투’(=Utu)의 아버지인 ‘난나’(=Nanna)라는 이름으로, 이외 지역에서는 태양신 ‘사마슈’(=Šamaš)와 미(美)와 전쟁의 여신 ‘이쉬타르’(=Ištar)의 부신(父神)인 ‘신’(=Sin) 또는 ‘닌갈’(=Ningal)이라는 이름으로 숭배되어졌다.⁵⁾ 이 지역에서 또한 이들 신적존재는 계약과 맹세의 신으로도 숭배되어졌다는 사실을 주전 3000년경에 기록된 계약문서와 국가 간의 조약문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한 주기로 달의 위상 변화의 규칙성과 불변성이 계약의 본질을 대변하기 때문이다.⁶⁾ 달의 여신 ‘니칼’(=Nikkal)과 달의 남신 ‘야리히’(=Jarich) 모두 우가리트에서 다산과 출산 그리고 풍요를 관여하는 신이자 계약의 신으로 숭배되었다.⁷⁾ 더 나아가서 이러한 달 숭배 사상은 토기, 직인 그리고 부조(浮彫) 위에 새겨진 달의 형상을 통해서

-
- 3) Friedhelm Hartenstein, "Der Sabbat als Zeichen und heilige Zeit. Zur Theologie des Ruhetages im Alten Testament". in: Martin Ebner, (Hrsgs.), *Das Fest: Jenseits des Alltags*, (JBTh 18; Neukirchen-Vluyn: Vandenhoeck & Ruprecht, 2004), 109–111.
 - 4) 달이 차지하는 종교적 위상 이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달은 태양보다 더 제왕이데올로기와 깊은 연관을 가질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를 위하여는 Gabriele Theuer, Art. "Mond" (erstellt: April 2010), www.wibilex.de를 참고하라.
 - 5)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월신이 태양신의 부신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월신이 태양신보다 더 높은 지위를 소유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6) Theuer, *위글*.
 - 7) 이외에도 달이 땅 속으로 저물기 때문에 우가리트에서는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으로도 월신이 숭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Manfred Dietrich / Oswald Loretz, "KTU 1.23 – Eine Hochzeit unter dem Schutze Els und der Koscharot. Mythos und Ritual in KTU 1.24" (TUAT.Erg.: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1), 203–207을 참고하라.

8) 전 가나안 지역⁹⁾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의 월신(月神) 숭배에 있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월신 형상이 보름달이 아닌 초승달 형상으로 숭배되어졌다는 것이다(그림1). 왜냐하면 망월(望月=보름)에 뜨는 보름달은 이미 꼭 차서 기우는 일만 남아서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월삭(月朔=초하루)에 뜨는 초승달은 점점 차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희망이나 긍정을 의미했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이유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망월¹¹⁾보다는 월삭이 특별히 불가사의한 마법의 힘을 소유한 신적 존재로부터 신탁을 받는 중요한 날이자¹²⁾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물을 봉헌하는 날¹³⁾이었다.

8) 윗글.

- 9) 무엇보다 모압은 하란과 함께 달의 신 Schaggar이 주신(主神) 그모스와 동일시 될 정도로 가나안 지역에서 대표적 월신 숭배지역이었으며, 메소포타미아 지역 월신 숭배의 대표 도시는 하란으로 'Sin'이라는 신명으로 숭배되었다. 이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되어졌던 월신의 다른 신명(神名)에 대하여는 Theuer, 윗글,을 참고하라.
- 10) 그러나 때때로 월삭은 흥일(凶日)이었다. 왜냐하면 달이 차기 직전의 날이기 때문에 암흑이 가장 짙은 날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가리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바알의 누이 아나트(=Anat)가 보름이 아닌 월삭에 결혼하는 것은 불길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Manfred Dietrich / Oswald Loretz, "Das Aqhat-Epos KTU I.17-1.19" (TUAT III/6;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97), 1281. 흥일 월삭에 대하여는 Manfred Dietrich / Oswald Loretz, "Astrologische Omina" (TUAT I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86), 95를 참고하라.
-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가리트에서 망월 역시 왕이 바알에게 예물을 봉헌해야 하는 중요한 절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Manfred Dietrich / Oswald Loretz, "Opferlisten für bestimmte Monate" (TUAT II/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88), 317.
- 12) Adam Falkenstein / Wolfal von Soden, *Sumerische und akkadische Hymnen und Gebete*, (Zürich: Altemis-Verlag, 1953), 317.398이 제시한 메소포타미아의 신(=Sin)에 대한 찬송사를 통해서 월삭은 신(=Sin)과 주요 신들로부터 신탁을 받는 날이었다.
- 13) 우가리트에서 월삭은 바알을 비롯하여 여러 신적 존재에게 제물을 봉헌하는 날이었다; Manfred Dietrich / Oswald Loretz, "Opferlisten für bestimmte Monate" (TUAT II/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88), 311.314.315. 무엇보다 왕은 망월과 함께 월삭에도 바알에게 예물을 봉헌하였다; Manfred Dietrich / Oswald Loretz, "Festmah zu Ehren der Palastgöttin Pidray" (TUAT II/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88), 322.



(그림 1) 우르 제3 왕조(BC. 2100년 경)를 세운 우르남무에게 통치권을 수여하는 원통인장의 인각문(印刻紋) 속 월신 '신(=Sin)'과 '초승달'의 모습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미 고왕조 시대부터 월신 '토티'(=Thot)가 태양신 '레'(=Re)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신적 존재로 지하세계의 신, 시간과 절기의 신, 지혜의 신 그리고 밤을 지배하는 빛들의 지도자이자 죽은 자들의 아버지로 이집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숭배되었다.¹⁴⁾ 달의 위상 변화와 연관되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도 망월보다 매월 월삭이 죽은 조상과 여러 주요 신적 존재를 위한 더 중요한 축제일로 지켜졌다.¹⁵⁾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망월이 월삭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을 뿐, 망월이 중요한 축제일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월삭과 망월 모두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즐기는 축일(祝日)에만 머무르지 않고, 죽은 조상과 신적 존재에게 제물을 봉헌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제일(祭日)의 의

14)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왕이데올로기와 비교해 보면 이집트 제왕이데올로기 속에서 토티의 역할은 레의 역할에 비해 빈약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Dieter Kurth, Art. "Thot" (LÄ VI; Wiesbaden: Harrassowitz, 1986), 497-523을 참고하라.

15) 월신 토티를 위한 월삭축제를 이미 고왕조 시대부터 즐겼음을 파피루스 문서(PT 532와 PT 61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Christoffer Theis, *Magie und Raum. Der magische Schutz ausgewählter Räume im Alten Ägypten nebst einem Vergleich zu angrenzenden Kulturbereichen* (Orientalische Religionen in der Antike 13; Tübingen: Mohr Siebeck, 2014), 173-174. 뿐만 아니라 태양신 '레'(=Re)가 월삭 축제일 자체이거나 월삭에 그를 위한 제물을 봉헌되었다. 그 예를 Matthias Müller, "Beschwörung für ein gutes Leben" (TUAT, NF 4;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69와 Miriam-Rebecca Rose, "Der Ritualtext des pKairo 58030 / pTurin 54042" (TUAT, NF 4;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3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를 모두 포함하는 축제일(祝祭日)이었다.¹⁶⁾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역시 주변 국가로부터 월신 숭배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리고는 우가리트의 월신 ‘아리히’와 연관된 ‘아리히의 고향’ 또는 ‘아리히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녔다.¹⁷⁾ 또한 구약 속에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월신의 흔적(신 33:14)과 이스라엘 사회 속에 월신 숭배 사상이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사실(왕하 23:5; 램 8:2) 역시 확인할 수 있다.¹⁸⁾ 그러나 월신 숭배를 YHWH 종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한 신명기 사가의 판단(신 4:19; 17:3)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구약은 이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달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종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반면, 구약에서의 달은 한갓 YHWH의 지배를 받는 창조물이자(사 13:10; 24:23; 60:19; 시 8:3; 75:16; 104:19; 136:9), YHWH를 찬양하는 도구(시 148:3)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본문 속에서는 고대 근동의 월삭과 망월에 대한 축제일의 전통을 확인할 수는 있다.¹⁹⁾ 월삭은 성소에서 YHWH에게 제의를 드리고(민 10:10; 28:11-15; 29:6; 사 1:13; 66:23; 호 2:13; 시 81:3), YHWH의 신탁을 받는 날이자(왕하 4:23; 사 47:13) 가족 구성원과 함께 즐기는 주요 축일이었다

16) Bischofberger, 윌글, 93-96. 무엇보다 André Lemaire, "Le Sabbat à l'époque royale israéliite", *RB* 80 (1973), 162-165는 고대 바벨론, 우가리트 그리고 페니키아의 자료들을 통해서 월삭과 망월에 제의 행사를 포함한 축제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17) Peter van der Veen, Art, "Jericho (AT)" (erstellt: Juli, 2018), www.wibilex.de.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월신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하란 출신이었다(창 11:31).

18) 빛을 발하는 YHWH의 모습(렘 31:35)과 출산을 관여하는 YHWH의 모습(호 9:14)의 역시 월신 숭배와 연관되었을 것이다. 이외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달이 숭배되었다는 고고학적 흔적에 대하여는 William W. Hallo, "New Moons and Sabbaths. A Case-study in the Contrastive Approach", *Hebrew Union College Annual* 48 (1977), 1-18, Othmar Keel, *Goddesses and Trees, New Moon and Yahweh. Ancient Near Eastern Art and the Hebrew Bible* (JSOT.S 261;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1998), 102-109, Gabriele Theuer, *Der Mondgott in den Religionen Syrien-Palästina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KTU 1.24 (OBO 17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429-560, 무엇보다 500-514를 참고하라.*

19) Timo Veijola, "Die Propheten und das Alter des Sabbatgebots", in: Volkmar Firtz (Hrsg.), *Prophet und Prophetenbuch: Festschrift für Otto Kaiser zum 65. Geburtstag* (BZAW 185,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9), 251-252; Hartenstein, 윌글, 108.

(삼상 20:5, 18, 24).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 이후에 기록된 문서(스 3:5; 느 10:33; 대상 23:31; 대하 2:4; 8:13; 31:3) 속에서도 월삭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후에도 주요 절기로 지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망월(=אָפּט) 역시 시편 81편 3절에서 월삭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임을 확인할 수 있다(비교 잠 7:20).²¹⁾

2) 포로기 이전 구약 본문 속 ‘אָפּט’: 망월

축제일 ‘망월’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문서 중 ‘אָפּט’가 언급된 본문(왕하 4:23; 호 2:13; 암 8:5; 사 1:13)은 단 네 개 불과하다. 이들 본문 모두 월삭 ‘אָפּט’와 함께 언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몇몇 학자들은 ‘אָפּט’가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이렛날 휴일인 ‘안식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부데(Karl Budde)는 자신의 제자 마인홀트(Johannes Meinhold)와 ‘אָפּט’에 대한 논쟁 중에서 이미 왕국시대에 7일 주기의 안식일 개념이 존재했다고 하였다.²²⁾ 프랑스 성서 고고학자 보(Roland de Vaux) 역시 칠일 주기의 안식일 개념은 시내산 계약의 결과(출 23:12; 34:21 그리고 십계명)로 매우 오래된 전통이자 YHWH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징표라고 주장하였다.²³⁾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포로기 이전 본문에서 언급된 ‘אָפּט’가 달의 주기

20) 이와 반대로 Roland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Heer und Kriegswesen. Die religiösen Lebensordnungen*, Band 2 (Freiburg: Herder, 1966²), 324, 364는 신년 칠월 초하루(레 23:24)에 월삭이 포함되면서 서서히 월삭의 본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21) 그러나 Hans-Joachim Kraus, *Psalmen 60-150* (BK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⁶), 728는 본문에서 언급된 ‘אָפּט’과 ‘אָפּט’은 월삭과 망월의 축제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하루부터 보름까지의 기간, 즉 14일간의 축제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22) Karl Budde, “Antworte auf Johannes Meinholds ‘Zur Sabbathfrage’”, *ZAW* 48 (1930), 139–140. Hans Walter Wolff, *Dodekapropheten 1. Hosea* (BK 14/1; Neukirchen: Neukircher Verlag, 1961), 45–46. Ernst Kutsch, “Der Sabbat – ursprünglich Vollmondtag?”, in: Ludwig Schmidt / Karl Eberlein (Hrsg.), *Kleine Schriften zum Alten Testament: zum 65. Geburtstag* (BZAW 168;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6), 71–77 그리고 Werner H. Schmidt, *Die Zehn Gebote im Rahmen alttestamentlicher Ethik* (EdF 281; Darmstadt: WBG, 1993), 86–96 역시 이에 동의한다.

23) Vaux, *위클리*, 335.

와 연관된 축제일, 즉 망월²⁴⁾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미 오래 전에 구약 속 히브리 단어 'שַׁבָּת'에 대하여 연구한 마인홀트는,²⁵⁾ 이 단어는 종교적 제의 행사를 전제할 때달 음력 보름의 축제일, 즉 망월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šapattu (또는 šabattu)²⁶⁾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왕국 멸망 이전까지는 망월의 축제일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는 'שַׁבָּת'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축제일을 즐기기 위한 자발적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규범에 따라서 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²⁷⁾ 왕국 시대의 'שַׁבָּת'은 7일 주기의 이렛날 휴식일인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한 달 주기의 축제일, 즉 매달 음력 열닷셋날 망월을 의미한다는 그의 주장은 이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다.²⁸⁾ 이러한 의미를 가진 'שַׁבָּת'이 '초하루'(=שַׁבְּתַיִת)와 함께 언급된 포로기 이전

24) 앞에서 언급한 'שַׁבָּת'(시 81:3)과 'שַׁבָּת' 모두 '망월'을 의미하지만, 두 용어의 차이를 Frank-Lother Hossfeld / Erich Zenger,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 Basel / Wien: Herder, 2000), 472,474는 북 왕국의 절기력에서 망월의 축제일을 일컬을 때 'שַׁבָּת'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25) Johannes Meinhold은 자신의 학위논문 *Sabbat und Woche im Alten Testament* (FRLANT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5)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שַׁבָּת'의 의미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그의 또 다른 논문 두 편, Johannes Meinhold, "Die Entstehung des Sabbats", *ZAW* 29 (1909), 83-84와 Johannes Meinhold, "Zur Sabbatfrage", *ZAW* 48 (1930), 121-138을 참고하라. 그러나 Julius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Walter de Gruyter, 2001⁶), 107-114은 이미 1878년에 비록 'שַׁבָּת'을 망월과 동일시하지 않았지만, 달의 주기와 연관된 축제일이라고 주장하였다.

26) 아카드어 'šapattu'의 사전적 의미에 대하여는 Wolfram von Soden, Art. "šapattu(m)" (AHW II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81), 1172와 Erica Reiner et al., Art. "šapattu" (šabattu)" (CAD 17;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1989), 449-450을, 이외에 'šapattu'가 망월을 의미하는 여러 예들은 Gnana Robins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Old Testament Sabbath. A Comprehensive Exegetical Approach* (BET 21; Frankfurt a. M.: Peter Lang, 1988), 159-166을 참고하라.

27) Meinhold, *위클* (1909), 84는 우리에게 익숙한 안식일 규례는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Niels Erik A. Andreasen, *The Old Testament Sabbath. A Tradition-historical Investigation* (SBL, Dissertation Series 7; Atlanta: SBL, Press, 1972), 117-121은 안식일 규례는 초기 이스라엘 종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이후 자신의 또 다른 논문, "Recent Studies of the Old Testament Sabbath", *ZAW* 86 (1974), 455-456에서 안식일 규례는 이미 모세 시대에 제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8) Benno Landsberger, *Der kultische Kalender der Babylonier und Assyrer, Volum 1* (Leipzig: J. C. Hinrichs, 1968), 131; Christoph Levin, *Der Sturz der Königin Atalja. Ein Kapitel zur Geschichte Judas im 9. Jahrhundert v. Chr.* (SBS 105;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2), 39; Robinson, *위클*, 211; Veijola, *위클*, 249-250; Hans Rechenmacher, "šabbat[t]- Nominalform und Etymologie", *ZAH* 9 (1996), 199-203; Corinna Körting / Hermann Spieckermann, Art. "Sabbat I" (TRE 29; Berlin: Walter de Gruyter, 1998), 519; Hartenstein, *위클*, 107. 이후의 몇몇 학자들은 명사 'שַׁבָּת'과 동사 'שָׁבַת'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면, Wolff, *위클*, 45-46는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에 이미 7일 주기의 안

네 개의 분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려는 수넴 여인과 그녀의 남편과의 대화 본문이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שַׁבָּט 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왕하 4:23)”

위 본문을 통해서 최소 엘리사 활동시기인 주전 9세기에 이미 월삭과 망월은 예언자를 찾아가서 YHWH의 신탁을 청했던 종교적으로 특별한 날이었다는 전통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²⁹⁾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월삭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축제일이었다면, 망월 역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축제일일 가능성도 이 본문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YHWH 제의와 연관된 망월의 축제일 שַׁבָּט 의 개념은 주전 8세기 예언서에서도 확인된다. 아모스 8장 5절에서 월삭과 שַׁבָּט 에 곡식 거래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단어가 망월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달의 위상 변화와 연관된 월삭과 망월이라면 매월 두 번 곡식 거래가 금지되지만, 만약 7일 주기의 안식일이라면 최소 5번(월삭에 한번 그리고 네 번의 안식일) 곡식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탁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שַׁבָּט 가 망월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šapattu*가 아닌 ‘중지하다’ 또는 ‘끝나다’를 의미하는 שָׁבַט 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볼프의 주장에 Vaux, 윗글, 330; Andreasen, 윗글 (1972), 61 그리고 Kutsch, 윗글, 71-73 역시 동의하였다. 그러나 שַׁבָּט 의 일차적 의미가 ‘(축제일을 즐기 위해서) 쉬다’ 그리고 ‘(축제를) 즐기다’를 뜻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두 히브리어 단어 모두 아카드어 *šapattu*와 연관되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면, Rechenmacher, 윗글, 202; Theuer, 윗글 (2000), 504-505.

29) Albrecht Al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s*, Vol 1 (München: C. H. Beck'sche, 1953), 331는 포로기 이전의 안식일은 YHWH 제의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의 신학자, 예를 들면 Körting / Spieckermann, 윗글, 51; Theuer, 윗글 (2000), 503, 각주; Corinna Körting, Art. “Sabbat (AT)” (erstellt: Mai 2008), www.wibilex.de; Hartenstein, 윗글, 118에 의해서 월삭과 망월에 YHWH 성소를 찾아 YHWH의 신탁을 구하거나 그를 위한 제의 예물을 봉헌하는 YHWH 제의와 연관되었다는 주장이 지지 받는다. 언제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 이러한 월삭과 망월의 축제일의 전통이 유입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마도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월신 숭배 사상과 이와 관련된 월삭과 망월의 전통이 가나안 정착과 함께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문 속에서 이러한 곡식 거래 금지가 엄격한 규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축제일로 인한 자발적 중단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³⁰⁾ 그러나 왕국 시대의 몇몇 토기에 기록된 문서 속에서 월삭에 양식을 위한 상거래를 제외한 일상적인 상거래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인 확인된다.³¹⁾ 그리고 요시아 시대로 추정되는 토기에 망월 이전에 추수를 끝내고 휴식을 취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³²⁾ 망월에 자발적인 휴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망월'은 8세기 예언자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야는 월삭과 망월을 함께 모여 축제일로 즐기는 것과 예물 봉헌하는 것을 비판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נָפֶשׁ 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사 1:13)”

호세아 역시 YHWH가 월삭과 망월을 포함한 모든 절기를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한다(호 2:11).³³⁾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13절)에서 이러한 축제일이 바알 제의와 연관된 '바알들의 날들'(יְמֵי הַבְּעֻלִים /예메 합베알림)이었기 때문이

30) 이러한 이유에서 몇몇 학자들은 이 구절이 주전 8세기 생활상을 반영한 포로기 이후의 재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Theuer, *윗글* (2000), 501과 각주 349에서 언급된 학자들과 Jörg Jeremias, *Der Prophet Amos* (ATD 2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³⁾, 113–116.

31) 이러한 관습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월삭은 지하세계의 불길한 세력이 흥하기 시작하는 '흉일'로 상거래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Theuer, *윗글* (2000), 501과 각주 353에서 언급된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하라.

32) James B. Pritchard, *The Ancient Near East.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290.

33) 그러나 동시대 예언자였던 호세아와 이사야의 안식일 비판을 아모스를 통해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Veijola, *윗글*, 251는 최소 아모스는 안식일에 대하여 중립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식일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은 아모스 6장 3절에 언급된 $\text{בַּיּוֹם הַשַּׁבָּת}$ (거짓의 안식일/세베트 하마스)이다. 개역개정은 이를 '포악한 자리'로 표준새번역은 '폭력의 날'로 번역하고 있지만, LXX는 이를 'σάββατον ψευδῶν'(사바톤 포이돈), 즉 '거짓의 안식일들'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모스 역시 이방 제의와 연관된 안식일에 대한 비판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즉, 예언자들은 (월삭과) 망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이방 제의와 연관된 절기를 비판한 것이다.³⁴⁾ 이와 같이 포로기 이전의 본문에 쓰인 **חָדָשׁ**는 칠일 주기의 휴일이 아닌 한 달 주기의 망월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당시 이 단어는 YHWH 제의와 연관된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축제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왕국 멸망 이후의 구약 본문 속 **חָדָשׁ**: 이렛날 휴일인 안식일

왕국 시대의 안식일 해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본문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는 과정 속에서 **חָדָשׁ**에 임무 교대하는 당번 궁궐 수비대와 비번 궁궐 수비대가 언급된 열왕기하 11장 4-12절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요아스 왕이 활동했던 주전 9세기 중반 유다 왕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레빈(Christoph Levin)은 몇 가지 근거로 요아스의 즉위식 과정에 대한 진술이 포로기 이후에 편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안식일에 임무 교대하는 궁궐 수비대 규칙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역대상 9장 25절에서 언급된 7일 주기의 성전 지킴이의 규칙을 전제로 기록된 것이다. 둘째, 요아스 왕위 즉위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마치 포로기 이후 정치와 종교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던 대제사장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5-8절에서 부여된 궁궐 수비대의 역할과 9-12절에서 이를 수행하는 궁궐 수비대의 역할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은 이후에 복잡한 편집과정이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요아스 즉위식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은 포로기 이후에 재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는 주장하였다.³⁵⁾

그러므로 이 본문이 비록 왕국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포로기 이후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전제한다면, **חָדָשׁ**에 교대한 궁궐 수비대의 교대 주

34) Veijola, *윗글*, 251; Hartenstein, *윗글*, 112-113.

35) Levin, *윗글*, 42-48. Budde, *윗글*, 140와 Veijola, *윗글*, 252, 각주 36 역시 이에 동의한다.

기는 한 달(=망월)이 아니라 7일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 달 주기의 망월에 궁궐 수비대가 자신들의 임무를 교대한다면, 그들의 근무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7일 주기의 안식일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포로기 이전의 구약 본문에서 הַשַּׁבָּת 가 단 네 번 언급된 것과는 달리 왕국 멸망 이후의 구약 본문에서 이 단어는 상대적으로 자주 쓰였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단순히 저작시기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הַשַּׁבָּת 에 대한 개념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망월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렛날 안식일로의 전환이다.³⁶⁾

(1) ' הַשַּׁבָּת '이 아닌 이렛날 휴일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망(삭)에서 다시 망(삭)으로 달의 위상이 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29.5일이다. 이는 왕정 시대의 망월 개념의 안식일에서, 포로기 이후 7일 주기 안식일 개념으로의 전환 과정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이렛날을 안식일로 정했을까? YHWH의 창조와 안식일 규례를 제외하고 이렛날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수 6) 속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렛날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왕국 멸망 이후 הַשַּׁבָּת 의 이러한 주기 변화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옛세 동안 일하고 이렛날 쉬는 7일 주기의 안식일 개념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고유 전통이라고 주장한다.³⁷⁾ 그러

36) 예를 들면, Vaux, 윗글, 331-335는 에스겔 시대라고 주장한다. Veijola, 윗글, 246-247, Körting / Spieckermann, 윗글, 519 그리고 Hartenstein, 윗글, 105은 망월 개념의 마지막 진술은 애가 2장 6절이라고 주장하였다.

37) Klaus Grünwaldt, *Exil und Identität. Beschneidung, Passa und Sabbat in der Priesterschrift* (BBB 85; Frankfurt a. M.: Hain Verlag, 1992), 124;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신앙. 역사로 본 구약신학」(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²), 238. 원제는 Werner H. Schmidt, *Alttestamentlicher Glaub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Alexandra Grund, *Die Entstehung des Sabbats. Seine Bedeutung für Israels Zeitkonzept und Erinnerungskultur* (FAT 75; Tübingen: Mohr Siebeck, 2011), 110-111.

나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된 주장이다.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이 날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고대 근동에서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달의 위상 변화와 상관없는 7일 주기의 휴일의 개념 역시 이미 주전 1000년 이전의 자료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오랜 전통³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³⁹⁾ 즉, 이 날은 길일(吉日)이 아닌 ‘위험하고 불길한 날’, 즉 ‘흉일’(凶日)이었기 때문에 휴일이었다.⁴⁰⁾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흉일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우무-렘누(ūmu-lemnu)’⁴¹⁾는 매달 7 배수의 날⁴²⁾(=7일, 14일, 21일 그리고 28일)이었다. 이 날에 왕은 말이나 나귀 등을 타지 않았으며, 의사들은 진료를 하지 않았고, 목자들은 고기를 먹지도, 불을 피우지도 그리고 빵을 굽지도 않았다.⁴³⁾ 중요한 사실은 이 날에 왕과 제사장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적 존재를 위한 제의 예물을 봉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⁴⁴⁾

안식일이 7일로 구성된 한 주간의 일곱 번째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달 7배

38) Meinhold, *윳글* (1905), 15–17. Vaux, *윳글*, 332는 옛 우가리트 지역(Ras Schamra)에서 발굴된 문서 속에서 7일 주기의 날을 언급되었음을 확인했다.

39) 이러한 이유에서 Lemaire, *윳글*, 185는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는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은 바벨론 시대의 ‘흉일들의 전통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La conception du sabbat, jour de repos le septieme jour, s’inspire tres probablement de l’institution des jours dangereux en Babylonie”.

40) Landsberger, *윳글*, 97–100; Veijola, *윳글*, 254.

41) ‘ūmu’는 ‘날’을 ‘lemnu’는 ‘흉한’을 뜻하는 아카드어이다. 이를 위해서는 Wolfram von Soden, Art. “Iemnu(m)” (AHw 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65), 543와 Art. “ūmu(m)” (AHw II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81), 1418–1420을 참고하라.

42) 흥미로운 사실은 흉일로 21일은 드물게 언급된다는 것이다; Schmidt, *윳글* (1993), 86. 이와 달리 이집트에서는 7 또는 7 배수 숫자가 아니라 3과 3 배수 그리고 4와 4 배수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Hans Goedicke, Art. “Symbolische Zahlen” (LÄ VI; Wiesbaden: Harrassowitz, 1986), 128–129. 또한 이집트에서는 길일과 흉일이 기록된 1년 달력이 존재하지만 흉일의 일정한 주기를 확인할 수 없으며, 태양의 자전 주기에 따라 하루 중 길한 시간과 흉한 시간이 구분되었다. 이를 위해서 Emma Brunner-Traut, Art. “Tagewählerlei” (LÄ VI; Wiesbaden: Harrassowitz, 1986), 153–156와 Heike Sternberg, “Aus einem Kalender für günstige und ungünstige Tage” (TUAT I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86), 132–135를 참고하라.

43) Levin, *윳글*, 40–41; Grund, *윳글*, 111.

44) Vaux, *윳글*, 331; Robinson, *윳글*, 211.

수의 날을 의미하는 'ūmu-lemnu'에 상응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⁴⁵⁾ 물론 모두 7일 주기라는 겉모습은 유사할 수도 있지만⁴⁶⁾, 구체적인 적용에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언급할 두 가지 내용이지만) 첫 번째, 안식일에 제의 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노동행위를 금하지만, 'ūmu-lemnu'는 특정한 직업군(왕, 제사장, 목자 그리고 의사 등)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식일에 YHWH를 위한 제의를 드렸지만 'ūmu-lemnu'에는 제의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망월'의 안식일에서 7일째 쉬는 날의 안식일 개념의 전환은 한 순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기 23장 12절과 34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쉬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 23:12)”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지니 밭 갈 때에도 쉬지며(출 34:21)”

두 구절 모두 이렛날을 휴일로 정의하면서도 'nṣṣ'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제 7일째 날에 노동 휴식을 요구하지만, YHWH 제의와 연관된 종교적 의미 및 이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 견해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두 구절은 창조주 YHWH와 연관된 안식일, YHWH에게 제의 예물을 드리는 안식일을 강조하는 (앞으로 언급하게 될) 포로기 이후의 본문과는 다르다.⁴⁷⁾ 또한 이 두 구절은 왕국 시대

45) Grund, 윗글, 111-112.

46) 이렛날 휴일인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즉, 안식일이 7 배수의 날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달은 2일, 9일, 16일 그리고 25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고 어느 달은 1일, 8일, 15일, 23일 그리고 30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중 안식일의 날짜는 유동적이다. 그러나 'ūmu-lemnu'은 매달 7일, 14일, 21일 그리고 28일로 일정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안식일'과 'ūmu-lemnu' 모두 7일 주기라는 겉모습만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47) Veijola, 윗글, 248-249는 이 두 본문이 왕국 시대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일의 휴식과 연관된 7일 주기의 휴일 개념을 이야기하는 가장 오래된 본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외에 Frank Crüsemann,

에 농부와 가축을 위해서 ‘ הַשָּׁבִיב ’라는 단어로 정의되지 않는 ‘노동의 휴일’ 개념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⁴⁸⁾ 이를 토대로 십계명과 포로기 이후의 문서 속에서 종교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 모두를 포함하는 안식일 개념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이렛날 휴일인 ‘ הַשָּׁבִיב ’

일부 학자들은 ‘망월’에서 ‘제 7 일째 휴일’의 안식일 개념 변화와 일반적인 안식일 준수 규정의 제정이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⁴⁹⁾ 그러나 이렛날을 안식일로 정의한 본문 중에서 십계명 신명기 본문(신 5:12-15)을 제외하고는 신명기 사가의 작품 속에서 ‘ הַשָּׁבִיב ’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명기 역사서 본문 속에서 7일 주기의 안식일에 대한 높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베이올라(Timo Veijola)의 주장⁵⁰⁾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이후에 언급할 포로기 이후의 문서에서 다시 ‘ הַשָּׁבִיב ’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여기에서는 이렛날 휴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렛날 쉬는 휴일의 개념의 ‘ הַשָּׁבִיב ’가 생성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 הַשָּׁבִיב ’가 왕국 시대의 ‘망월’ 개념에서 포로기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7일 주기의 안식일 개념을 얻기까지 ‘ הַשָּׁבִיב ’로 정의되지 않은 ‘이렛날 휴일’을 의미하는 중간 단계를 거쳤다는 것이다.

“Denke an den Sabbattag, ihn zu heiligen”, in: ders., *Bewahrung der Freiheit. Das Thema des Dekalogs in sozialgeschichtlicher Perspektive*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93), 7, Rainer Kessler, “Das Sabbatgebot. Historische Entwicklung, kanonische Bedeutung und aktuelle Aspekte”, in: Dieter Georgi / Hans-Günter Heimbrock (Hrsgs.), *Religion und Gestaltung der Zeit* (Kampen: Kok Pharos, 1994), 94, Körtling / Spieckermann, 윗글, 519 그리고 Hartenstein, 윗글, 119를 참고하라.

48) Hartenstein, 윗글, 119.

49) 예를 들면, Winfried Thiel,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1-25* (WMANT 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3), 202-209, Frank-Lothar Hossfeld, *Der Dekalog. Seine späten Fassungen, die originale Komposition und seine Vorstufen* (OBO 4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251 그리고 Schmidt, 윗글 (2010²), 236-242.

50) Veijola, 윗글, 256.

(3) 포로기 이후 예언서 속 ‘חַבֵּשׁ’

‘안식일’이 언급된 포로기 이후의 문헌은 크게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 제사장 문서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이다. 왕국 시대에 안식일에 대한 기억의 회상을 전제로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의 삶을 비판한 예레미야 17장 19-27절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⁵¹⁾ 이 본문에서 이전에 확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안식일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구체적인 몇몇 안식일 규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21-22절). 둘째, 왕국이 멸망한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신학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23절). 셋째, 왕국 회복과 메시아 도래의 가장 큰 전제 조건으로 안식일 규례의 준수를 꼽았다(25-27절).

포로기 이후 예언서 중에서 에스겔서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여기에서도 이전과 다른 안식일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안식일은 YHWH와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⁵²⁾(겔 20:12, 20)이며,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YHWH를 모독하는 것(겔 22:8, 26)을 의미했다.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YHWH 성소를 더럽히는 것(겔 23:38)과 동일했다. 이러한 표현은 망월에 이방신들에게 제의 예물을 봉헌했던 왕국시대의 잘못된 안식일 전통에 대한 8세기 예언자들의 신학적 비판을 전제했을 것이다. 동시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YHWH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했으며, 우상 숭배와 함께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겔 20:10-24). 에

51) Körting / Spieckermann, 윗글. 520은 예레미야 17장 19-27절은 예레미야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Veijola, 윗글. 256-257도 느헤미야 13장 15-22절 내용과 단어의 유사성을 근거로 위 본문이 상당히 후대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터 크레이기 외 저음, 『예레미야 1-25』(권대영 옮김), (서울: 솔로몬, 2003), 425-429, 원제는 Peter C. Craigie, et al., *Jeremiah 1-25* (Dallas: Word, 1991)은 이를 반대한다.

52) ‘표징’이라는 용어는 제사장 문서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다. 예를 들면, 노아(창 9:12, 13, 17)에게 ‘표징’은 무지개이며 아브라함(창 17:11)에게는 할례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에스겔서 본문은 제사장 문서를 전제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겔서의 다른 본문(겔 44:24; 45:17; 46:1-15)에서는 안식일 규범과 안식일 제의 예물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몇 학자들은 에스겔의 활동 시대⁵³⁾인 왕국 멸망 직전에서 포로기 초기에 엄격한 안식일 규범과 칠일 주기의 안식일 개념이 확립되었다라고 주장하지만,⁵⁴⁾ 포로기 이후 문서인 제사장 문서 속 안식일 개념과 비교해보면 이들 본문은 에스겔 예언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포로기 이후에 첨가된 본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⁵⁵⁾

제3 이사야서에서 또 다른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⁵⁶⁾ 이제 안식일은 YHWH의 '언약과 연관되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YHWH의 언약을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사 56:4). 또한 안식일 규범도 단순히 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넘어 여행을 금하는 것처럼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사 58:13-14). 가장 중요한 안식일 개념의 변화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다(사 56:6-7; 66:23).

(4) 제사장 문서 속 'נָצַח'

'안식일'은 소위 제사장 문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창조 이야기(창 1:1-2:3) 속에서 'נָצַח'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지만, 옛날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 모든 일을 쉬는 휴일은 '안식일'을 연상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창 2:2-3). YHWH가 안식한 이렛날은 그의 창조사역의 종착점이자 YHWH가 직접 축복한 거룩한 날이었다. 그러나 이 창조기사에서 'נָצַח'라

53) 에스겔 개인과 그의 활동 시기에 대한 자료의 역사적인 신뢰성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유배된 사람들 중의 하나로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인 주전 593년에(1:2)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고(33:21-22),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후 주전 573년에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환상을 경험한다(40:1).

54) Meinhold, 윗글 (1905), 9-10.35는 에스겔이 '칠일 주기 안식일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였다.

55) Veijola, 윗글, 259-261; Körting / Spieckermann, 윗글, 520.

56) 제3 이사야 속 안식일 이해는 김동혁,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이사야 56장 1-8절과 58장 13-14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4권 (2018년 6월), 12-36을 참고하라.

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안식일 규례는 인간이 지켜야하는 규례이지, 창조 사역과정에서 YHWH가 지켜야하는 규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제사장 문서 본문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16장 22-30절이다. 옛날날에는 두 배의 양식을 YHWH가 제공해 주지만, 다음날에 들에 나가도 어떠한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백성에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렛날은 ‘쉬는 날’이자 ‘YHWH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심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한다. 제사장 문서 가운데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제사장 문서의 기본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개념으로서 안식일은 일을 쉬는 휴일이다(23절). 둘째, 안식일을 ‘YHWH의 거룩한 안식일’(23절) 또는 ‘YHWH의 안식일’(25절)로 칭하여 종교적 의미를 강조한다. 셋째, 안식일은 ‘YHWH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히 준수해야할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다(23절).

제사장 문서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창조신학’과 연관성이 없었던 안식일이 창조신학과 연결되는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11절 십계명 본문이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할 이유가 YHWH가 옛날 동안 자신의 창조 사역을 끝내고 이렛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다.⁵⁷⁾ 이외에도 ‘거룩하게 지켜야하는 안식일’(8절), ‘YHWH의 안식일’(10절), ‘YHWH가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한 안식일’(11절)과 같은 종교적 측면이 강조되는 안식일 개념과 휴식을 취하는 사회적 개념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해야하는 의무를(10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

57) 다른 십계명 본문인 신명기 5장 12-15절에서도 안식일 규례가 언급된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처럼 출애굽기 안식일 규례보다 신명기 본문이 더 오래된 본문이다. 왜냐하면 신명기 안식일 준수의 구체적 이유로 신명기 역사서에서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즉 YHWH의 구속의 역사를 연관시켰기 때문이다. 두 십계명 속 안식일 규례 및 저작 시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무엇보다 Hossfeld, 윌글, 40-57와 Axel Graupner, "Zum Verhältnis der beiden Dekalogfassungen Ex 20 und Dtn 5. Ein Gespräch mit Frank-Lothar Hossfeld", *ZAW* 99 (1987), 315-318을 참고하라.

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한 제사장 문서 본문처럼, 안식일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에 어떠한 제의 예물을 봉헌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유민, 종, 나그네와 가족)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다(10절).

또 다른 제사장 문서 본문인 출애굽기 31장 12-17절에서 몇 가지 새로운 안식일 개념이 추가된다. 첫째, 안식일은 YHWH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자(13, 17절)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16절).⁵⁸⁾ 이제 안식일은 할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대표적 개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즉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는 것처럼 강력한 안식일 규례가 처음으로 언급된다(15절). 이러한 강력한 안식일 규례는 이후에 보다 정교히 수정된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음으로 대신할 뿐만 아니라(출 35:2; 레 23:29, 30), 안식일에 불 피우는 것과(출 35:3) 나무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민 15:32-36)⁵⁹⁾, 안식일에(성전에서) 봉헌하는 제의 예물(민 28:9-10)에 대하여 언급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실제적인 안식일 규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이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일 년 주기의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유월절, 무교절,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수감사절, 신년절기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기준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לֹא תַעֲשֶׂהוּ**)는 안식일 전통(3절)을 설명하는 히브리어 문구가 칠월 초하루 새해(25절)와 속죄일(28, 31절)과 같은 주요 절기⁶⁰⁾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58) Hartenstein, 윗글, 122은 '안식일은 YHWH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징표이자 언약'으로 이해한 이 구절들이 안식일을 언급한 제사장 문서 중 가장 후대에 기록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59) 김진명,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해석: 민 15장 32-36절에 대한 편집비평과 구 조주의 비평연구, 『구약논단』 17권 (2011년 6월), 34-35은 32절에서 '그 안식일(**שַׁבָּת**/하 사바트)이 LXX에서는 '그 안식일들'(τῶν σαββάτων/톤 사바톤) 복수형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행위가 안식일마다 반복되는, 즉, 안식일에 나무하는 행위가 일상적인 삶이었다고 주장하였다.

60)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לֹא תַעֲשֶׂהוּ**)는 규례가 또한 무교절(7-8절), 추수감사절(21절) 그리고 초막절(35절)에서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요 절기에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것

안식일 규례가 다른 주요 절기에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¹⁾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안식일에 ‘거룩한 모임’(שַׁבָּת קְדוּשָׁה/믹라에 코테쉬)을 열 것을 명했다는 사실이다. 이 용어는 제사장 문서(출 12:16; 민 28:18, 25, 26; 29:1, 7, 12)에서만 언급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언급한 ‘거룩한 모임’은 포로기 이후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신앙공동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아닌 ‘고행하는 날’이라고 정의한 것(32절; 비교 레 16:31)과 만약 안식일에 고행하지 않으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표현(29절) 역시 흥미롭다.⁶²⁾

(5) 역대기 역사서와 구약 이외의 자료 속 ‘שַׁבָּת’

여타의 포로기 이후의 문헌과 비교해 보면, 역대기 역사서 본문들의 주요 관심사는 제2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는 안식일 제의와 안식일에 봉헌되는 예물에 관한 것이었다(대상 9:32; 23:31; 대하 2:4; 느 10:33).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안식일 ‘규례에 따라’(대상 23:31) 또는 ‘YHWH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대하 31:3) 거행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성전과 관련된 안식일 규례는 이 시기에 정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의 규례가 정형화되었다는 가능성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낭독했던 소위 ‘안식일 시편’이라고 표제어를 가진 시편 92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이 시편은⁶³⁾ 창조신학과 연관된 안식일을 강조한 제사장 문서 속 안식일 개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⁴⁾ 이

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1) Körting, 윗글.

62) 이외에도 안식일의 제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는 박경철,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구약논단』 17집 (2005년, 4월), 56-77을 참고하라.

63) 예를 들면, Kraus, 윗글, 811과 Hossfeld / Zenger, 윗글, 631을 참고하라.

64) Hossfeld / Zenger, 윗글, 641. 무엇보다 Erich Zenger, “Kanonische Psalmenexegese und christlich-jüdischer Dialog. Beobachtungen zum Sabbatpsalm 92”, in: Erhard Blum (Hrsg.), *Mincha. Festgabe für Rolf Rendtorff zum 75. Geburtsta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243-260을 참고하라.

와 달리 동시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엄격한 안식일 규례가 존재했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3장 15-22절에 보면 안식일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두로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다양한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 역시 안식일 규범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경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약 이외에 안식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이집트 남부 도시 아수완 맞은편 나일 강에 위치한 엘레판틴 섬에서 발굴된 주전 5세기 중·후반에 파피루스와 질그릇 위에 기록된 아랍어 문서들이다. 이 자료는 예루살렘 지역 이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섬에 주전 4세기 초반까지 정착했던 유대인들은 일부 북 왕국 출신 유민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남 왕국 멸망과 함께 이곳에 이주한 남 왕국 출신 유민들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이 남겨 놓은 많은 문서를 통해서 이들이 본토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안식일’ 개념을 추측할 수 있다. 많은 문서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만, 이렛날 안식을 취하는 칠일 주기의 안식일을 의미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초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서는 안식일에 배달되는 물품과 배달 방법 및 거래 방법이 기록되는 등 안식일에 상거래가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후기에 기록된 문서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⁶⁵⁾ 이를 통해 주전 4세기 전까지도 이집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규제할 안식일 규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식일 규례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엄격하게 적용되었을 시기는 언제일까?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 앞서 언급한 제사장 문서(출 35:2-3; 레 23:29, 30; 민 15:32-36)에서도

65) 이궁재, "이집트 엘레판틴 섬 유대인들의 YHWH 종교와 YHWH 성전: YHWH는 그곳에서 유일신으로 숭배되었는가?", 『신학사상』 177집 (2017/여름), 57-59.

엄격한 안식일 규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들 본문은 엄격한 안식일 규례를 언급하지 않은 여타의 제사장 문서와 비교해보면 후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테가 마카베오서를 근거로 주장한 것처럼,⁶⁶⁾ 주전 2세기경 마카베오 시대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카베오 시대 직전에) 비로소 엄격한 안식일 규례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요새를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진술(1마카 2:32-38; 2마카 6:11; 15:1)과 안식일에 적군을 추격하는 것도 포기하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을 안식일 이후로 미뤘다(2마카 8:26-27)는 기록을 통해서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4) ‘שַׁבָּת’와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정체성

‘사회적 의미가 배제된 안식일은 무엇보다 유대인에게 중요한 종교적인 용어다’라는 보의 주⁶⁷⁾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안식일이 노동의 휴일’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의미보다 사회적 측면으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는 케즐러(Rainer Kessler)의 의견⁶⁸⁾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일주일 중 이렛날 휴식을 의미하는 ‘안식일’을 종교적·사회적 측면에서 고대 근동 국가의 관습과 비교해 보면, 안식일은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왕국 멸망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유월절, 할례와 함께 주변 민족과 비교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었다는 것이다.⁶⁹⁾ 이를 확

66) Budde, 윗글, 140. 이와 함께 Körting / Spieckermann, 윗글, 519를 참고하라.

67) Vaux, 윗글, 330.

68) Kessler, 윗글, 92-103.

69) 포로기 이후 안식일이 유월절과 할례와 함께 유대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무엇보다

인할 수 있는 구절은 안식일을 즐거움, 즉 ‘즐거운 날’로 표현하는 이사야 58장 13절(=‘그리고 너는 안식일을 즐거움이라 부를 것이다/וְקָרָאתָ לַשַּׁבָּת עֵנוּ)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7배수의 날이 ‘불길한 날’(=ūmu-lemnu)이기 때문에 일을 쉬고 공식적인 제의 행사를 금했지만, 바벨론 포로기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살면서 이러한 전통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렛날 안식일은 YHWH의 거룩한 날이자 YHWH에게 예물을 봉헌하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YHWH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출 31:13, 17; 겔 20:20)이자 YHWH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징표’(겔 20:12)인 이 날을 유대인들은 거룩히 지켜야만 했던 것이다.⁷⁰⁾ 그러므로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축제일이자 신적 존재에게 제의 예물을 드렸던 ‘망월’의 개념을 받아들여 ‘חַדְשׁוֹ’를 이해했다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후의 유대인들은 ‘망월’이라는 이전의 개념을 거부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חַדְשׁוֹ’, 즉 이렛날 휴식을 취하는 사회적 휴일 개념에 YHWH 종교의 중심에서 있는 ‘안식일’ 개념을 더한 새로운 ‘חַדְשׁוֹ’를 정립하였다.

3. 나가는 말

‘חַדְשׁוֹ’는 구약 속 이스라엘 종교와 현재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기 경험은 ‘חַדְשׁ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안식일’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왕국 시대의 ‘חַדְשׁוֹ’는 달의 주기적 위상 변화와 연관된 ‘망월’과 깊은 연관이

Grünwaldt, 윗글. 122-219을 참고하라.

70) Schmidt, 윗글 (2010³), 242.

있었다. 망월(=šapattu)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족과 함께 즐겼던 축일(祝日)이자, 죽은 조상을 비롯한 신적 존재에게 제물을 봉헌하는 제일(祭日)이었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전통을 받아들여 왕국시대의 ḥḫwš는 YHWH 제의(왕하 4:23)와 연관된 매달 망월에 즐겼던 축제일이었다. 그러나 이 날이 YHWH 제의보다는 달을 신성시 했던 이방 제의 문화와 연결되면서 때때로 예언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호 2:11; 사 1:13; 애가 2:6).

왕국이 멸망하면서 ḥḫwš는 '망월'에서 달의 위상 변화와 상관없이 옛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는 '안식일' 개념으로 변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출애굽기 23장 12절과 34장 21절에서 ḥḫwš로 정의되지 않는 이렛날 휴일이 존재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렛날 휴일 관습이 ḥḫwš라는 단어와 연관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후에 제사장 문서 속에서 ḥḫwš에 관한 새로운 개념도 발견된다. 첫째, ḥḫwš는 이렛날 휴일인 안식일이다. 둘째, 안식일은 십계명(출 20:8-11)에서 YHWH의 창조사역 및 창조신화와 연관되었다. 셋째, 안식일은 'YHWH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요구되었다. 넷째, 안식일은 YHWH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자 '영원한 징표'이므로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밀접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ḥḫwš가 언급된 포로기 이후 예언서 속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개념은 제3 이사야서(사 56:1-8; 66:23)에서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닌 이방인들이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절기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역대기 역사서 본문 속 '안식일'에 대한 관심은 안식일에 제2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는 제의와 그 곳에서 안식일에 봉헌되는 안식일 예물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안식일에 모든 일을 금하는 엄격한 안식일 규례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엄격히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였다. 아마도 이러한 규례는 마카베오 시대에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왕국 시대에 ḥḫwš는 고대 근동에서 망월에 즐겼던 이방인들의 절기(=축제일) 문화를 공유했지만,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

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종교 및 제의와 차별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YHWH의 거룩한 날' 또는 '이렛날 휴일과 같은 안식일 개념은 왕국 시대의 망월 개념에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이다.

4. 참고문헌

- 김동혁,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이사야 56장 1-8절과 58장 13-14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4권 (2018년 6월), 12-36.
- 김진명,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해석: 민 15장 32-36절에 대한 편집비평과 구조주의 비평연구”. 『구약논단』 17권 (2011년 6월), 33-53.
- 박경철,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구약논단』 17집 (2005년, 4월), 56-77.
- 이금재, “이집트 엘레판틴 섬 유대인들의 YHWH 종교와 YHWH 성전: YHWH는 그곳에서 유일신으로 숭배되었는가?”. 『신학사상』 177집 (2017/여름), 37-67.
-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신앙. 역사로 본 구약신학』 (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원저 Schmidt, Werner H., *Alttestamentlicher Glaub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 피터 크레이기 외 지음, 『예레미야 1-25』 (권대영 옮김), (서울: 솔로몬, 2003). 원저 Craigie, Peter C. et al., *Jeremiah 1-25* (Dallas: Word, 1991).
- Alt, Albrech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s*, Vol 1 (München: C. H. Beck'sche, 1953).
- Altenmüller, Hartwig, Art. “Feste” (LÄ II; Wiesbaden: Harrassowitz, 1975), 171-191.
- Andreasen, Niels Erik A., *The Old Testament Sabbath. A Tradition-historical*

- Investigation* (SBL Dissertation Series 7; Atlanta: SBL Press, 1972).
- , “Recent Studies of the Old Testament Sabbath”, *ZAW* 86 (1974), 453-469.
- Bischofberger, Otto, Art. “Feste und Feiertage. I. Religionsgeschichtlich” (TRE 11; Berlin: Walter de Gruyter, 1983), 93-96.
- Bonnet, Hans, Art. “Feste”, *Lexikon der ägyptischen Religionsgeschichte* (Nikol Verlagsgesellschaft: Hamburg, 20003), 185-187.
- Brunner-Traut, Emma, Art. “Tagewählerlei” (LÄ VI; Wiesbaden: Harrasowitz, 1986), 153-156.
- Budde, Karl, “Antworte auf Johannes Meinholds ‘Zur Sabbathfrage’”, *ZAW* 48 (1930), 138-145.
- Crüsemann, Frank, “Denke an den Sabbattag, ihn zu heiligen”, in: ders., *Bewahrung der Freiheit. Das Thema des Dekalogs in sozialgeschichtlicher Perspektive*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93), 53-58.
- Dietrich, Manfred / Loretz, Oswald, “Astrologische Omina” (TUAT I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6), 94-95.
- , “Das Aqhat-Epos KTU I. 17-I. 19” (TUAT III/6;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7), 1254-1305.
- , “KTU 1. 23 - Eine Hochzeit unter dem Schutze Els und der Koscharot. Mythos und Ritual in KTU 1. 24” (TUAT. Erg.;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1), 203-207.
- , “Opferlisten für bestimmte Monate” (TUAT II/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8), 310-318.
- , “Festmahl zu Ehren der Palastgöttin Pidray” (TUAT II/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8), 322-323.
- Falkenstein, Adam / Soden, Wolfral von, *Sumerische und akkadische Hymnen und Gebete* (Zürich: Artemis-Verlag, 1953).

- Gladigow, Burkhard, Art. "Ritual" (*HRWG IV*; Stuttgart: Kohlhammer, 1998), 458-460.
- Goedicke, Hans, Art. "Symbolische Zahlen" (*LÄ VI*; Wiesbaden: Harrassowitz, 1986), 128-129.
- Graupner, Axel, "Zum Verhältnis der beiden Dekalogfassungen Ex 20 und Dtn 5. Ein Gespräch mit Frank-Lothar Hossfeld", *ZAW* 99 (1987), 308-329.
- Grünwaldt, Klaus, *Exil und Identität. Beschneidung, Passa und Sabbat in der Priesterschrift* (BBB 85; Frankfurt a. M.: Hain Verlag, 1992).
- Grund, Alexandra, *Die Entstehung des Sabbats. Seine Bedeutung für Israels Zeitkonzept und Erinnerungskultur* (FAT 75; Tübingen: Mohr Siebeck, 2011).
- Gunkel, Hermann,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⁵).
- Hartenstein, Friedhelm, "Der Sabbat als Zeichen und heilige Zeit. Zur Theologie des Ruhetages im Alten Testament". in: Martin Ebner, (Hrgs.), *Das Fest: Jenseits des Alltags* (JBTh 18; Neukirchen-Vluyn: Vandenhoeck & Ruprecht, 2004), 83-102.
- Hallo, William W., "New Moons and Sabbaths. A Case-study in the Contrastive Approach", *Hebrew Union College Annual* 48 (1977), 1-18.
- Helek, Wolfgang, Art. "Rituale" (*LÄ V*; Wiesbaden: Harrassowitz, 1984), 271-285.
- Hossfeld, Frank-Lothar, *Der Dekalog. Seine späten Fassungen, die originale Komposition und seine Vorstufen* (OBO 4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 Hossfeld, Frank-Lothar / Zenger, Erich,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 Basel / Wien: Herder, 2000).

- Jeremias, Jörg, *Der Prophet Amos* (ATD 2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³).
- Johannes Meinhold, *Sabbat und Woche im Alten Testament* (FRLANT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5).
- , “Die Entstehung des Sabbats”, *ZAW* 29 (1909), 81-112.
- , “Zur Sabbatfrage”, *ZAW* 48 (1930), 121-138.
- Kessler, Rainer, “Das Sabbatgebot. Historische Entwicklung, kanonische Bedeutung und aktuelle Aspekte”, in: Dieter Georgi, Hans-Günter Heimbrock (Hrsgs.), *Religion und Gestaltung der Zeit* (Kampen: Kok Pharos, 1994), 92-103.
- Keel, Othmar, *Goddesses and Trees, New Moon and Yahweh. Ancient Near Eastern Art and the Hebrew Bible* (JSOT, S 261;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1998).
- Körting, Corinna, Art. “Sabbat (AT)” (erstellt: Mai 2008), www.wibilex.de.
- Körting, Corinna / Spieckermann, Hermann, Art. “Sabbat I” (TRE 29; Berlin: Walter de Gruyter, 1998), 518-521.
- Kurth, Dieter, Art. “Thot” (LÄ VI; Wiesbaden: Harrassowitz, 1986), 497-523.
- Kutsch, Ernst, “Der Sabbat - ursprünglich Vollmondtag?”, in: Ludwig Schmidt / Karl Eberlein (Hrsgs.), *Kleine Schriften zum Alten Testament: zum 65. Geburtstag* (BZAW 168;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6), 71-77.
- Kraus, Hans-Joachim, *Psalmen 60-150* (BK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⁶).
- Landsberger, Benno, *Der kultische Kalender der Babylonier und Assyrer, Volum 1* (Leipzig: J. C. Hinrichs, 1968).
- Lemaire, André, “Le Sabbat à l'époque royale israéliite”, *RB* 80 (1973), 161-

- Levin, Christoph, *Der Sturz der Königin Atalja. Ein Kapitel zur Geschichte Judas im 9. Jahrhundert v. Chr.* (SBS 105;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2).
- Müller, Matthias, “Beschwörung für ein gutes Leben” (TUAT.NF 4;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65-274.
- Pritchard, James B., *The Ancient Near East.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 Rechenmacher, Hans, “šabbat[t]- Nominalform und Etymologie”, *ZAH* 9 (1996), 199-203.
- Reiner, Erica, et al., Art. “šapattu” (šabattu)” (CAD 17;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1989), 449-450.
- Robinson, Gnana,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Old Testament Sabbath. A Comprehensive Exegetical Approach* (BET 21; Frankfurt a. M.: Peter Lang, 1988).
- Rose, Miriam-Rebecca, “Der Ritualtext des pKairo 58030 / pTurin 54042” (TUAT.NF 4;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300-323.
- Schmidt, Werner H., *Die Zehn Gebote im Rahmen alttestamentlicher Ethik*, (EdF 281; Darmstadt: WBG, 1993).
- Soden, Wolfram von, Art. “lemnu(m)” (AHw 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65), 543.
- , Art. “šapattu(m)” (AHw II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81), 1172.
- , Art. “ūmu(m)” (AHw II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81), 1418-1420.
- Sternberg, Heike, “Aus einem Kalender für günstige und ungünstige Tage” (TUAT I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6), 132-135.

- Theis, Christoffer, *Magie und Raum. Der magische Schutz ausgewählter Räume im Alten Ägypten nebst einem Vergleich zu angrenzenden Kulturbereichen* (Orientalische Religionen in der Antike 13; Tübingen: Mohr Siebeck, 2014).
- Theuer, Gabriele, *Der Mondgott in den Religionen Syrien-Palästina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KTU 1.24* (OBO 17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 , Art. "Mond" (erstellt: April 2010), www.wibilex.de.
- Thiel, Winfried,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1-25* (WMANT 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3).
- Vaux, Roland de,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Heer und Kriegswesen. Die religiösen Lebensordnungen*, Band 2 (Freiburg: Herder, 1966²).
- Veen, Peter van der, Art. "Jericho (AT)" (erstellt: Juli, 2018), www.wibilex.de.
- Veijola, Timo, "Die Propheten und das Alter des Sabbatgebots", in: Volkmar Firtz (Hrgs.), *Prophet und Prophetenbuch: Festschrift für Otto Kaiser zum 65. Geburtstag* (BZAW 185;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9), 246-264.
- Wellhausen, Julius,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Walter de Gruyter, 2001⁶).
- Wolff, Hans Walter, *Dodekapropheten 1. Hosea* (BK 14/1; Neukirchen: Neukircher Verlag, 1961).
- Zenger, Erich, "Kanonische Psalmenexegese und christlich-jüdischer Dialog. Beobachtungen zum Sabbatpsalm 92", in: Erhard Blum (Hrgs.), *Mincha. Festgabe für Rolf Rendtorff zum 75. Geburtsta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243-260.

검색어

안식일

월삭

망월

유대인의 정체성

십계명

A Theological Study on the Conceptual Change of
'Sabbath' in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Sabbath'- The Full Moon, Festival, Holiday and Sabbath

Keung Jae Lee

Lecturer at Mokwon University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 / Bethel, Dr. Theol.

The most important day of religious significance in the Old Testament is 'שַׁבָּת'. But it is impossible to define this Hebrew word as just a word 'Sabbath.' Because the fall of the kingdom of Israel and the Jewish experience of the Babylonian captivity brought about a decisive change in understanding 'שַׁבָּת'. First, this word is derived from the word 'šapattu' in Akkadian, which means the 15th day of the lunar calendar (=the full moon). "The full moon" here was in Mesopotamia a celebration day for the family and a day to sacrifice for divinity. This tradition influenced the understanding of the 'שַׁבָּת' in the time of the kingdom of Israel.

After the fall of the kingdom, the concept of 'שַׁבָּת' has changed from the meaning

www.kci.go.kr

of 'the full moon' to the 'Sabbath.' The Sabbath here was a day of rest on the seventh day and a holy day of worshipping YHWH. This fact is reflected in the documents that were recorded after the Babylonian exile. First, the three prophecies emphasize keeping the Sabbath day holy. 'Sabbath' in these prophecies was an eternal sign and the eternal covenant between God and Israel. On the other hand, in the Priestly source 'Sabbath' was later associated with the Creation theology and the Decalogue. But the concept of the Sabbath as an 'eternal sign' and the 'eternal covenant,' emphasized in the three prophecies, is also mentioned here. The main concern of the Chronicler's history was the Sabbath order and the offerings that were held on the Sabbath in the Jerusalem temple. But Sabbath laws, such as forbidding all work on the Sabbath, have been made after considerable time, perhaps in the Maccabean period. Most importantly, the Sabbath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representing the identity of the Jews, just like 'circumcision' or the 'Passover.'

Keywords

Sabbath

new moon

full moon

Jewish identity

Decalogue

- 투고일: 2018년 7월 4일
- 심사일: 2018년 7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7월 27일

www.kci.go.kr